상시 기동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전북교육청, 복무 위반·권한 남용 등 중점

내달 17일까지 부패 집중 신고기간도 병행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석 공직기강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기동감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중 운영되는 현장 밀착형 감찰체계로, 전북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언론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찰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감찰 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교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

중점 감찰사항은 △복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보안관리 미흡△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우월적 지위 남용·성비위·금전 비위 등 중대 사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적발 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17일까지 추석 대비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병행, 명절을 틈탄 금품 수수·부정청탁 등 비위 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문화는 교육행정의 신뢰로부터 출발한다"며 "상시 기동감찰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8~19일 이틀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2025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내년도 학교급식 정책방향 협의·공유

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2025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수기관 견학 및 현장 사례 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2026년도 학교급식 정책방향 협의 및 우수사례 공유 △영양교육체험관 등 우수기관 방문 △우수급식 박람회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급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 운영 부실"

특정감사 결과 세출예산 부당 집행 · 강사 수당 과다 지급

부적정한 대출 사업 · 물품 관리 소홀 등서 문제점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군산 청소년 자치교육시설 '자몽'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자몽'에 대해 최근 5년간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세출예산 부당 집행, 강사 수당 과다 지급, 부적정한 대출 사업, 물품 관리 소홀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학생을 위한 간식비를 단순 방문자에게 제공하거나, 청년강사·마을교사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적발된 것.

실제, 대리 서명된 등록부를 첨부해 식비나 간식비로 집행하는 등 모두 2,700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강사수당 지급 과정에서 강의시간 기록 누락이나 과다 산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운영 계획의 부실, 만족도 조사 미실시, 예산 공개 부재 등 전반적인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

특히 '자몽'의 운영과 감사 논란을 두고 일부 단체가 주장한 보복·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체험형 청렴연수

청렴·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등 3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강진 다산청렴연수원에서 하반기 체험형 청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청렴·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청렴체감도 측정학교 교직원 등 사전 신청한 3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청렴 정책 공유 및 청렴특강 △청렴과 연계한 마음챙김·힐링 체험 △청렴 소통시간 등으로 구성, 체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전 신청을 받아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높은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청렴업무로 인한 피로 해소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어학당 설립 '첫걸음'

전북대, 전북가족센터협회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위해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국제처(처장 조화림)는 지난 18일 고창군가족센터에서 전북가족센터협회와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화림 국제처장을 비롯해 김태연 언어교육부처장, 장덕상 전북가족센터협회장, 14개 시·군 가족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인 전북가족센터협회는 도내 14개 시군 가족센터를 대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역정주 외국인 지원과 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한국어학당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 온 한국어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북대 국제처는 지난 18일 고창군가족센터에서 전북가족센터협회와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나아가 남원 글로컬캠퍼스 내 한국어학당 설립 및 운영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글로컬캠퍼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4개 시군 가족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을 지탱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의 날 수익금 기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 전액 2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새움센터(이하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알리고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학생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또한, 학과 학생들이 운영한 판매 부스의 수익금 전액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사회복지학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학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큰사람 역량강화 취업캠프' 성료

재학생·졸업생 등 참여… 유학생 대상 'JOB 부스터 캠프'도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025 큰사람 역량강화 취업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5 JOB Booster Camp'를 열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진수당 77주년기념홀에서 열린 큰사람 역량강화 취업캠프에는 3·4학년 재학생과 2년 이내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AI 시스템을 활용한 입사지원서 작성 실습을 비롯해 유튜브 '면접왕이형'의 취업특강, 조별 소그룹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 준비 방법을 배웠다.

이어 JBNU 인터내셔널센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60여명이 참여한 JOB Booster Camp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국내 기업 채용 준비 전략을 비롯해 AI 활용 서류 준비 방법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특강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사전교육

참가 중학생 24명 대상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나사(NASA) 글로벌 캠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헌츠빌에서 진행되는 나사 글로벌 캠프에 참가하는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교육에서는 △해외 안전교육 △단체생활 수칙 안내 △영어 의사소통 준비 △나사 캠프 프로그램 소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나사 글로벌 캠프는 헌츠빌 스페이스센터의 나사 스페이스 아카데미 과정,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탐방, 미국 명문 대학 과학탐구 활동,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탐방 등으로 운영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1월 8일 사후 발표회를 열어 캠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유학생 대상 글로벌 창업 지원 나섰다

인바운드 창업지원 캠프 개최

글로컬30 지역 상생사업 일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8~19일 양일 간 전주 이비스 스타일 호텔에서 인바운드 창업지원사업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amp'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이 주관한 이번 캠프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글로벌 창업 환경과 국내 창업 생태계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에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창업 비자 제도 및 법률 안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초기 마케팅 전략 멘토링 등 단계별 창업 교육을 받았다. 특히 창업 전문가와의 1:1 매칭 멘토링을 통해 실무 중심의 집중 코칭을 받으며 사업화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글롭러 기술 기반의 유망한 유학생 창업팀을 발굴해 육성하고, 자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창업 자본금 확보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전북대학교가 지난 18~19일 양일 간 전주 이비스 스타일 호텔에서 인바운드 창업지원사업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amp'를 연 가운데,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경수 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유학생들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창업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유학생 창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비전대, 신산업특화선도 전문대학지원 제2차 전략포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6일 교내에서 '2025년 신산업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에 참여하는 강원도립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서일대학교 및 전주비전대학교 사업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대학의 변화와 신산업 2.0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과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 및 각 대학 사업단 개요 발표, 초광역권 공동 교류 및 성과 확산 방안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일대학교 김민철 교수가 진행한 '생성형 AI 시대, 대학의 변화' 특강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IB로 바라보는 리더십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제4차 IB 리더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리더십,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IB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와 수업·평가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며, 글로벌 교육 트렌드 속에서 IB 프로그램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학교 리더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도내 IB 학교와 전북미래학교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강사로 최진아 대구복현중학교 교장을 초청, △IB 프로그램의 철학과 학교 운영 전략 △교사와 학생의 변화를 이끄는 수업 혁신 △학교 리더가 직면하는 도전과 과제 등을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